

IMF 총재, 경북 K-컬처 매력에 빠지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경주에서 문화순방 나서...우수 관광자원 홍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를 방문해 주요 문화 관광지를 순방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31일 APEC 정상회의 분회의 개막 1세션(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 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에서 특별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문화순방은 불국사에서 시작

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성대하게 맞이하고, 청운교·백운교를 배경으로 한 기념 촬영을 시작으로 불국사 일정을 시작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보탑의 화려한 멋과 석가탑의 균형감 있는 멋이 조화롭게 배치된 대웅전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으로 경주민속공예촌을 방문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도예 명장이 직접 시연

하는 토기 제작을 관람하며 토기 성형에서부터 소성까지 신라 전통 토기의 제작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본 후 명장이 제작한 전통 토기 작품을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K-Tech 전시관을 찾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K-Tech 전시관에서 이차전지·에너지·조선 등 핵심 산업부터 화장품·웹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을 총망라한 전시관을 관람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선박 운항 체험, 로봇 기술을 활용한 만화가 이현세 작가 풍의 초상 그리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상을 확인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을 두고 경상북도와 함께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총재의 순방을 통해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부산 오랜 염원 결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확정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 금정산국립공원 지정·공원계획 결정(안) 통과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부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5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약 78퍼센트(%)인 52.136제곱킬로미터(㎢)는 부산 6개 자치구에, 약 22퍼센트(%)인 14.723제곱킬로미터(㎢)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립공원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로 지정된 사례로, 국립공원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로 지정된 사례로, 국립공원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위 수준이며, 연간 312만 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에 이른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평가되는 금정산은 향후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부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며,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탐방객 수가 연간 4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광 수입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우 기자**

자치경찰위원회-자율방범연합회와 한마음 전진대회

우수방범대원 표창 수여·체육대회 등 진행...안전한 선진 도시 울산 도약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자율방범연합회와 함께 11월 2일 중구 다목적구장에서 '제3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우수방범대원 표창 수여, 체육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한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단합 체육행사가 열려 대원 간 유대감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자율방범대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전한 울산실현을 위한 공동체 기반 치안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길 위에 있는 울산은 산업수도에 이어 인공지능(AI)수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이 성장의 기반은 시민의 안전이며, 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경이 함께 협력하는 안전한 선진 도시 울산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9억 8,600만 원을 투입해 목욕탕 노후 굴뚝 15개를 철거했으며, 내년에는 정비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자**

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해체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정비 대상은 총 66개소에 달한다. 올해는 20개 업소가 신청해 예산 범위 내 15개소를 선정, 전부 철거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노후 굴뚝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 해체계획서 검토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호근 기자**

기후위기 극복 지원 배분금 1억 원 전달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수면용품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영도)가 10월 31일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2025년 기획사업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 배분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양호영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차정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5년 기획사업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한파 등 겨울철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웃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

도록 지자체에 배분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해당 배분금을 활용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 난방 텐트, 겨울 이불, 깔개 등의 난방·수면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복지관과 경로식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998년 7월 설립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혁신기 지원사업 △착한 생활카드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먹거리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생활 안

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호영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뜻에 따라 배분금을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가 11월 1일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2025 성남거리음악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제3회 울산 전국 거리음악축제' 수상팀인 △선선온더브릿지(대상) △BLUE IS NOT BLUE(은상) △크랩(동상)을 비롯해 본선 진출팀인 △강주 △모커 △멜팅사운드 △사운드리즈 등 7개 팀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였다. **이호근 기자**

경남도, 고성 송학동 14호분 2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

5세기 중엽 조성된 소가야 왕묘로 추정, 봉분 축조과정 전모 확인



경상남도는 고성 송학동 고분군 14호분 2차 발굴조사 결과, 가아원역 내 최대 규모의 봉분 구조와 정교한 축조공정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삼강문화유산연구원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 발굴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가 열렸으며, 오는 11월 6일에는 도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공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14호분은 남북 47.5m, 동서 53m, 높이 7.6m에 달하는 초대형 원형 봉토분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아원역 내 최대 규모의 고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특히, 봉분 외면의 층석 처리와 내측의 토제·상하부 성토 조성은 소가야 왕묘의 체계적인 축조방식을 보여주며, 가아원 고분 축조기술의 표준모델로 평가된다. 14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로, 내부에서 대도, 갑주, 살포, 철도 등 무기류와 함께 소가야계 토기류가 다량 출토되

었다.

송학동 고분군 1호분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며, 14호분이 5세기 중엽 소가야의 왕묘급 고분임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대묘계판갑과 층상구조를 개회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14호분은 남북 47.5m, 동서 53m, 높이 7.6m에 달하는 초대형 원형 봉토분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아원역 내 최대 규모의 고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특히, 봉분 외면의 층석 처리와 내측의 토제·상하부 성토 조성은 소가야 왕묘의 체계적인 축조방식을 보여주며, 가아원 고분 축조기술의 표준모델로 평가된다. 14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로, 내부에서 대도, 갑주, 살포, 철도 등 무기류와 함께 소가야계 토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토제·층석·상하부 성토공정이 완비된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며, 가야사 복원과 세계유산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최성룡 기자**

시활용 기관사 근무표 작성시스템 개발

대구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관사 근무 일정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AI 승무다이어그램(Diagram)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시활용 기관사 근무표(Diagram) 작성 시스템'은 복잡한 열차 운행패턴, 기관사 대기시간, 열차 출입과 배정 등 다양한 제약조건을 AI가 자동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근무표를 도출하는 고도화된 기술이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AI를 활용한 2호선 휴일 기관사 근무표(Diagram) 개발에 착수했다. AI가 추출한 코드를 프로그램화하여 기존보다 근무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기관사 피로 누적을 줄이고, 운행 중간 대기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열차 운행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가 동종기관 최초로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으로 완성한 성과로, 공사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AI 모델은 현장 환경에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2호선 휴일 승무다이어그램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노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설명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AI가 단순히 근무표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열차운행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스마트 안전운행 핵심기술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기관사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신보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19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하였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이 대구신보에 5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5배인 62.5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한윤석 기자**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체부 공모선정 국비 299억 확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야구장 건립 국비 지원 규모 중 역대 최대치이다.

이번 국비 299억원 확보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국가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2026년에 50억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총 사업비 2,924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추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부산시는 앞으로 내년(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 3월 개장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직야구장은 ▲내년(2026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 ▲2031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구장으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새로운 사

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 친화적인 명품 야구장을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워라밸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2025년 부산 워라밸 주간」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 **이유우 기자**